

<b>Title</b>	李致萬「一九八〇年代における南北統一運動のための日本教会の役目と寄与」へのコメント(韓国語)
<b>Author(s)</b>	東野, 尚志
<b>Citation</b>	聖学院大学総合研究所紀要, No.55 別冊, 2013.3 : 36-40
<b>URL</b>	<a href="http://serve.seigakuin-univ.ac.jp/reps/modules/xoonips/detail.php?item_id=5011">http://serve.seigakuin-univ.ac.jp/reps/modules/xoonips/detail.php?item_id=5011</a>
<b>Rights</b>	



聖学院学術情報発信システム : SERVE

SEigakuin Repository and academic archiVE

# 이치만 “1980년대 남북통일운동을 위한 일본교회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코멘트

히가시노 히사시

이치만교수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 기독교회가 경험한 곤란과 아픔으로 가득찬 복잡한 발걸음에 대해서, 특히 남북으로 분단된 민족통일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하고, 세계 교회와 이웃나라 일본의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 모습을 그려 주신 것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나 자신이 이 논문을 통하여 역사적 사건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래서 이 코멘트에서는 먼저 논문의 개요와 논점을 정리한 후, 소감을 밝히고자 한다.

## I. 논문의 개요와 논점

“여는 말”에서 이치만 교수는 한국 기독교회가 정의와 평화의 복음을 실천하는 선교적 과제로서 한반도의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이 대동단결하는 데 힘써 왔다는 것을 나타내었고, 그 과정에서 세계 교회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특히, 일본의 교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에 대해 1980 년대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에 논문의 목적을 두었다.

“1해방이후, 한일 기독교 관계의 발자취”에서 이치만 교수는 “한일기본조약(1965.6.22)”의 조인에 의한 한일국교정상화를 전후로 시작된 한일 교회의 교류의 발자취를 더듬어 간다. 양 교회의 인적 교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 기독교계에서 한국에 대한 사죄와 화해를 통해서 교류의 회복을 바라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 결실로 1965년 9월, 당시 일본기독교단 총회장 오무라 이사무 목사가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제 50 회 총회에 옵서버로 참석해 총회 석상에서 사죄의 말을 전한 것이, 한일 기독교의 성숙한 관계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본다.

게다가 1967년 9월, 일본기독교단 총회 총회장 스즈키 마사히사 목사가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에 참석한 것, 또 이듬해에는 한국의 3교회와 일본기독교단과의 “선교 협약”이 체결된 것을 양국교회의 협력관계의 첫걸음으로 평가한다. 특히, 한일 기독교 교류관계의 급진전의 상징으로서, 1967년 일본기독교단 총회장 스즈키 마사히사의 명의로 공개된 “제2차대전에 대한 일본기독교단의 책임에 대한 고백(전책고백)”에 주목하고, 이 전책고백과 같은 해에 결성된 “한국 제암리 분살사건 사죄위원회”가 일본 기독교인에 대해서, 한국과 한국 교회에 사죄의 자세를 촉구한 계기가 된 것을 평가한다.

“2남북기독교도의 만남과 일본 기독교”에서, 이 교수는 역사적으로 분단된 남북의 기독교도들이 국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통일을 지향하고, 또 일본의 기독교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검증한다. 1979년의 군사 쿠데타와 1980년의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압은 국제사회가 한국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통일논의와 통일문제연구조차 봉쇄되어 버린 국내 사정 가운데, 한국 기독교는 세계교회와 재외한인교회와의 연대를 통해, 한반도의 분단이 반 인권, 반 민주적인 한국의 상황의 핵심이며, 세계 평화에 위협을 주는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확인했다. 특히 한국 기독교가 세계교회와의 연대를 통해 통일운동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된 회의로서, “동북아의 평화와 정의에 관한 협의회(도산소 협의회 1984년)”에 주목한다. 이 협의회는 북한 교회와 중국 교회는 불참하였지만, 한국 기독교통일운동의 방향 설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그러나, 한일기본조약으로 한국 정부만을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로 인정하고 북한 정부를 무시 내지 적대시하는 일본에 있어서, 일본 기독교도 또한 북한에 대한 일본 사회의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일본 기독교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북한 기독교 및 북한을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나도록, 평화통일에 우호적인 주변 정세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분단의 직간접적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이 동북아에서의 유사에 대비해 군비 증강과 군사 협력을 지속해 온 것이 큰 장애가 되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3. 분단 문제에 대한 일본 기독교도의 인식과 그 의의”에서, 이 교수는 일본 기독교가 한반도 통일운동에서 세계교회의 일원으로 보조를 맞춰온 것을 인정하면서, 분단문제에 대한 일본 기독교인의 인식에 대해 논한다. 원래 한반도의 분단은 일본의 조선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는 일본 기독교인의 말을 다수 인용한다. 한국 기독교의 분단문제에 대한 지배적인 견해가 북한의 “남침”의 책임을 묻는 “반공”으로 귀결되는 것에 대해서, 획일적인 틀로 파악하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일본의 책임과 죄책으로 여기는 일본 기독교인의 고백적 인식을 평가한다. 단, 일본의 정계와 일본의 일반사회가 북한에 대한 극단적인 편견에 사로 잡혀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한다.

한국 기독교는 통일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로 보수와 진보가 배타적으로 대립해 온 것을 지적하고, 그 이유가 균형적인 신학적 입장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수와 진보, 그리고 한국과 북한을 아우르는 중도적이고 균형적이며, 또한 실천적인 신학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한다.

“맺는 말”에서 이상의 논점을 간추리고 있다.

## II. 소감

본 논문에서는 일본 기독교의 인식에 대해서, 일본기독교단의 전쟁책임고백(이른바 “전책 고백”)에서 시작하여, 한반도의 남북분단 문제에 대한 일본 기독교인의 책임고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를 되돌아 볼 때, 일본이라는 나라와 일본 교회의 과거의 죄책의 고백과 회개는 확실히 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 기독교회에서, “전책고백”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기독교회, 특히 일본기독교단에 몸 담고있는 사람으로서, 일본 기독교에 대한 이 교수의 평가에는 위화감을 지울 수 없다. 물론, 그것은 일본 기독교회 내부의 문제이지만, 1969년 이후 대학 분쟁은 신학교에 까지 비화해, 이후 40년에 걸쳐 일본기독교단을 혼란에 몰려 들게 했다.

“교단분쟁”이라는 혼란 속에서, 신앙고백보다 전책고백을 중시하고, 교회

의 거룩성을 부정해, 복음 전도보다도 사회 활동을 중시하는 사람들에 의해, 일본기독교단의 교회의 전도는 크게 쇠퇴해 버렸다. 전도에 의해 교세의 확대를 추구하는 것은, 식민주의와 같다라는 일방적인 인식에 의해, 그리스도의 대 전도 명령이 무시되고, 그리스도의 교회이기보다도 세상을 위한 교회라는 것을 우선시하는 오류에 빠진 것이다. 교회가 소위 “교회파”와 “사회파”로 나뉘어 대립 한 것은 교단에 있어서도 참으로 불행한 역사였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교회 형성과 사회 활동이 분단되어, 진정한 복음에 뿌리를 내린 구원의 간증으로서의 교회적 사회활동이 제대로 자리매김이 되지 않았다. 그런 “교단 분쟁”에서 “전책고백”이 어떤 역할을 짊어졌는가라는 사실을, 한국 기독교회의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 교수가 대화의 상대로 한 일본기독교단이라는 교회는, 1941년 전시 체제 하에서 종교 통제에 의해 여러 교파와 교회가 합동하여 태어난 교회이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전후가 되어도 해산하지 않고, 합동 교회로서의 행보를 계속해 오늘에 까지 이른다. 단, 합동 전의 교파적인 신앙과 직제가 명확한 교회와 합동 교회의 모습에 찬동할 수 없는 교회는 전후 차례로 이탈해 나갔다. 그러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면서, 다양한 교파적인 배경을 가진 교회의 합동 교회로서 교단의 신앙적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1954년에 일본기독교단의 신앙고백을 제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1960년대 후반부터, 체제에 반대하고 폭력으로 변혁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기독교단은 큰 혼란과 분쟁에 휘말려 들었다. 동경신학대학이 바리케이드 봉쇄를 풀기 위해 기동대를 도입한 것은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학생을 매도한 것, 1970년의 오사카 만국박람회에 기독교관을 출전한 것은 자본주의의 축제에 교회가 찬동한 것, 결혼식에 식문 중의 에베소서 제 5장은 여성 차별 등등. 이러한 주장을 갖고 폭력조차 불사하는 파괴적인 힘이 교회를 습격했던 것이다.

1967년에 교단 총회장의 이름으로 공개된 “전책고백”은, 아시아의 교회에 준 인상과는 달리, 일본기독교단의 내부에서는 마르크스주의적인 사회이론에 근거한 사회활동그룹의 기치로 이용되어, 이른바 “전책고백 노선”을 낳게 되었다. 그것에 의해, 하나님과 연결되는 신앙적인 수직차원과 사회윤리를 추진하는 수평차원이 분단되어, 성경의 복음에 사는 간증으로서의 사회 활동은 혁명이론에 의해 장소를 박탈당했던 것이다. 1954년에 제정된 “신앙고백”은 단순한 작문으로 내용이 없다. “전책고백”이야말로 진실된 말, 교회의 고백이

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사회 활동의 거점, 즉 혁명의 거점으로 해체하려고, 교회 안에서 큰 혼란을 야기시켰다.

대외적으로, 특히 주변국의 교회에 대해서 일본 기독교단은, “전책고백”을 해서, 전쟁중의 교회의 죄의 고백과 회개를 명확히 한 교회로서 평가를 받고 있고, 이 교수도 그 점을 높이 평가하신다. 그러나 “전책고백”이 일본기독교단 내부에서 수행한 역할은, 화해의 길을 개척했다라기 보다는 대립을 낳아, 하나님과 연결되는 수직차원을 괄호에 넣어, 수평차원에만 관심을 돌리게 해, 교회의 세속화를 추진한 노선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교회의 신앙고백을 소홀히 하고,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신앙의 신비가 아닌, 단순한 개인의 결의 표명과 교제의 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변질시킨 힘이 일본 기독교단의 교회를 침식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간신히, “교회파”와 “사회파”의 대립 축을 넘어, 전도하는 교회의 재건을 위해, 일본기독교단은 방향을 크게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전 총회장 야마키타 노부히사 목사는 교단 분쟁의 혼란을 “광야의 40년”으로 회고하면서, 그 사이에 파괴되어 잃어버린 교회의 생명을 회복할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현 총회장 이시바시 히데오 목사는 “전도로 뜨겁게 타오르는 교단”의 형성을 목표로 세우고 있는 것이다.

종래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의 만남의 관계가, 일본측으로서는 한 쪽에 치우친 형식에서 발전되어 온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지금이야말로 각 나라의 역사적 과제, 각 교회의 역사적 행보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만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 의미로, 이치만 교수의 논문을 통하여 한국 기독교회가 깊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직면해 온 남북 분단의 역사와 일본 기독교회의 관계에 대해 배울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싶다. 거기에서 제시된 일본기독교단의 과제를 받아들이면서, 한국 기독교회와 일본 기독교회의 새로운 교제의 역사를 개척해 나가고자 한다.

(翻譯：高 萬松)